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6호 [루게 제25795호] 주제 106 (2017)년 10월 13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창립 70돐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을 축하방문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인 리일환동지, 김용수동지, 김여정동지, 조용원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 원장인 룩군 소장 오룡택동지를 비롯한 학원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올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바라보시며 건국의 초행길에서 혁명학원을 세워주시고 반세기가 넘는 기나긴 세월 혁명가 유자녀들을 사랑의 한몸에 안아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거룩한 명도의 자욱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창립 70돐을 맞이한 학원의 교직원, 원아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친 교직원, 학



고수하고 빛내이며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건설하고 미더운 핵심골간들을 수없이 키워냄으로써 혁명위업계승의 력사에 자랑스러운 행로를 아로새기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며 성장한 학원의 졸업생들이 반세기반대결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혁명의 기동, 핵심골간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골간들, 핵심부대를 키우는 만경대혁명학원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원아들을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학원의 교육교양사업과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은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학원을 또다시 찾으시어 친어머님의 뜨거운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대한 뉘그러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의 숭고한 뜻을 충정다해 받들어 주체혁명의 피줄기를 굳건히 이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시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생들은 몸소 원아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어 뜨거운 정을 부여하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그 사랑으로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갈 계승자들로 자라나도록 걸음걸을 손잡아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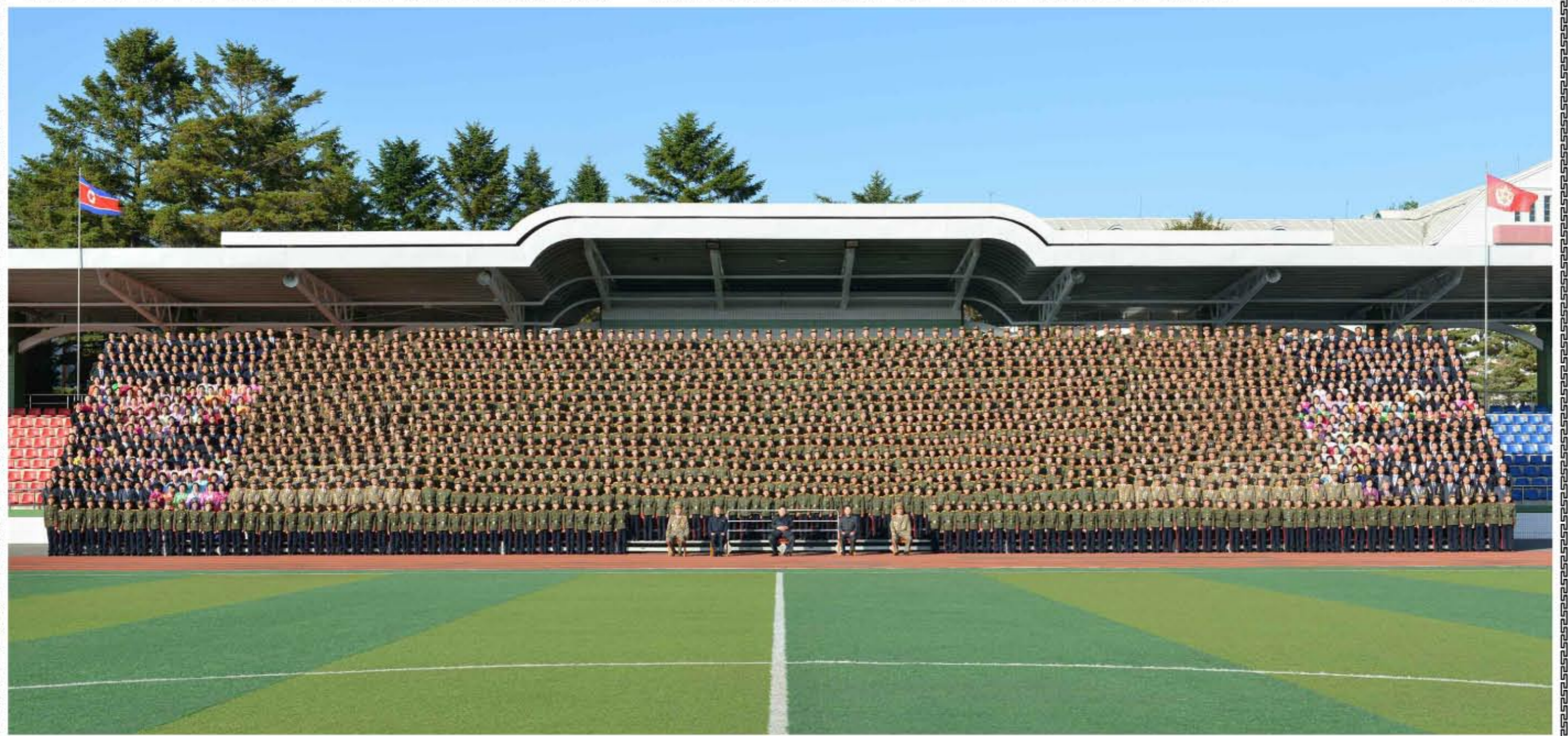
손을 저어주시며 온 나라의 축복속에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한 만경대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이 앞으로 만경대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며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언제나 핵심적역할을 다해 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세운 혁명사적관과 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인 교육환경, 과학교육설비들을 훌륭히 갖춘 여러 강의실들, 종합체육관, 수영관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교육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태어나고 강화발전되어온 만경대혁명학원이 지난 70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학원, 위대한 장군님의 학원으로서의 성격과 본태를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 기념보고대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창립 70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결친 위대한 진로따라 온 나라 천만민이 주체혁명의 명맥을 줄기차게 이어가며 최후승리를 앞당겨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혁명가유자녀교육의 전당, 세상제일의 배움터로 공지높은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이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혁명학원들이 걸어온 70년의 영광년월은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후대사랑속에서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주체혁명의 믿음직한 핵심공간들을 억세게 키워내며 당의 혁명가유자녀교육사상과 정책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고있다.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0돐 기념보고대회가 12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당과 수령의 손길아래 태어나고 강화발전되어온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을 세계에 다시없는 김일성, 김정일혁명학원으로 빛내어주시고 학원창립일을 성대히 기념하도록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이 휩싸여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의 태상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상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록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혁명가유자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핵심공간이 되자!》 등의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광호동지, 태종수동지, 항일혁명투사들인 김철만동지, 리영숙동지,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일군,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 《김정은장군환가》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박광호동지가 전달하였다.

기념보고를 황병서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절세위인들의 은제로는 손길아래 태어나고 강화발전되어온 명실공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혁명학원이며 혁명가유자녀들의 영원한 사랑의 품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혁명가유자녀교육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빛나는 전통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해방후 혁명가유자녀들을 위한 혁명학원을 세울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잠판목을 예시하며 학원터전을 잡아주시고 의지가 없이 해메던 혁명가유자녀들을 다 찾아오도록 하시였으며 주제 36(1947)년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창립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가유자녀교육사상과 항일혁명투사들에 대한 혁명적의리의 빛나는 결실이며 우리 나라에서 정구적인 혁명가유자녀교육의 새 역사를 펼친 뜻깊은 사변이었다.

혁명생애의 전기간 혁명가유자녀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실험과 로고를

다 바치시며 주체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놓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의 업적이다.

우리 당의 혁명가유자녀교육역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드시어 항일아동단원들을 보살펴주시던 그 사랑으로 학원원아들을 주체혁명의 바를을 이어갈 믿음직하고 훌륭한 기둥들로서 키워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이 뜨겁게 아로새겨져있다.

김정숙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늘 함께 있고싶어하는 원아들의 간절한 소원을 깊이 헤아리시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만경대혁명학원에 어머니수령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도록 하시고 혁명가유자녀들의 마음속에 오직 수령님만 믿고 따르는 신념의 기둥을 억세게 세워주시였다.

항으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혁명가유자녀들을 한몸에 안아 버린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 제일원대, 총대와 함께 한생애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워주시고 그 사랑과 은정은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의 위대한 전설로 세세년년 길이 전해질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70년전 어머니수령님과 어머니님을 모시고 만경대혁명학원 개원시장을 찾으시였던 력사의 그날로부터 수십 차례나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학원을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신 혁명가유자녀교육의 최고전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존엄한 전화를 나날 《김일성장군의 락전연주소》를 조직하시오 《축복의 노래》와 《조국의 품》, 《우리의 수령》을 비롯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창작보급하시어 혁명가유자녀들의 가슴속에 우리의 아버지지는 김일성원수님이시고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새겨주시였다.

혁명가유자녀교육을 선군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학원을 당의 학원으로, 원아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꾸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혁명학원교정의 밝은 불빛은 순간도 꺼질줄 몰랐고 원아들은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세상에 부러운것없이 마음껏 배우며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학원창립 50돐이 되는 뜻깊은 날에 력사적사훈을 보내주시고 창립 60돐을 맞으며 혁명학원졸업생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태상상을 모신 졸업증과 새로 제정한 졸업회장을 수여하도록 은정깊은 사랑도 베풀어주시였다.

보고자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밑에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65돐을 맞으며 교직원, 학생들에게 력사적사훈 《혁명가유자녀들!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를 보내주시어 혁명가유자녀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적극을 마련해주시겠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시어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어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른 새벽 학원의 책임일군을 전화로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학원교가를 창작할데 대한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고 몸소 구질구질 완성시켜주시는 《만경대혁명학원교가》를 보내주시어 학생들이 노래와 함께 신념의 넋을 키우며 혁명의 계승자로 자라나도록 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율려식수준에 몸소 만경대혁명학원 원아들과 함께 나무를 정성들여 심으시며 나무심는 방법도 하나하나 배워주시고 혁명의 바를은 애국주의에서부터 이어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학원이 전군의 앞장에서 김정일애국주의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도록 하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학원교육을 정치사상교육, 신념교육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력적인 명도가 있어 학원 학생들 모두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혁명의 불은기, 주체의 불은당기를 끝까지 지켜 싸우는 사상과 신념의

최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나게 되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혁명가유자녀들을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할 제일전우, 가장 귀중한 혁명동지라고 불러주시며 운명도 미끼도 다 맡아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은 우리모두가 영원히 안겨갈 친어머니의 품, 위대한 태양의 품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명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이 지난 70년동안 원아들을 만경대의 아들딸, 백두산의 아들딸들로 훌륭히 키워내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혁명학원들의 교직원, 학생들은 학원이 창립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과 수령의 명도에 끝없이 충실하였으며 혁명의 존엄한 년대들을 넘어오면서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어 혁명의 수뇌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렬히 옹호보위하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졸업생들은 평온한 날이나 준엄한 날이나 혁명가유자녀의 근본을 잊지 않고 당과 국가, 군대의 중요한 위치와 당이 부르는 가장 어렵고 힘든 혁명초소들에서 핵심적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당에 령도를 가장 충직하게, 가장 성실하게 만들어나가는 맨 앞장에는 언제나 혁명의 무기, 계급의 무기를 억세게 틀어잡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 졸업생들이 시였었다.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는 치열한 격전장마다에서 생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위대한 수령님을 결사옹위하였으며 당의 기초축성시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역년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투쟁생의 자음을 뚜렷이 남기였다.

전대미문의 사회주의수호전을 벌리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혁명학원졸업생들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수령보위, 혁명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였다.

우리 혁명무력의 현대화된 무장장비들에도, 세계를 경탄시키는 인공지구위성의 성공적인 발사와 지하핵시험의 완전성공을 비롯하여 다방면으로, 편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이적인 기적과 변혁들에도 절세위인들께서 품들어 키워주시는 혁명학원졸업생들의 애국의 피와 땀이 력력히 스며들었다.

보고자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이 키워낸 졸업생들과 같이 하는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핵심공간들을 가지고있기에 우리 혁명은 력사의 온갖 시련과 난관을 파강히 뚫고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승승장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3 번 으 로 계 속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올해농사를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자

가을걷이는 단순한 영농전투가 아니다

안주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돌고 있는 가을농사의 협동농장에서 서 벼가을걷이실적이 전루시작부터 부쩍 오르고있다.

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모든 농정별작업들이 남달리실현상을 펼쳐서 막을수 있게 전개되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만 보아도 벼가을걷이를 단순한 영농전투가 아니라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적 존엄사수권이라는 관점에서 현상기술지도를 과학적인 담보에 해나가고있는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의 진취적인 일본새를 엿볼수 있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은 사무실에만 앉아서 말고 화선에 나가 앞장서서 자기 부름, 자기 단위를 이끌어가는 기꺼운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올해 시에서는 벼가을을 지난 해보다 다섯 먼저 시작하면서 더 남달리실현을 열중하고 있다. 결속할 목표를 세웠다. 이런 조건에 맞게 경영위원회일군들은 높은 작업속도를 보장하면서 더 귀중한 단락을 허실일이 거두어들이기 위한 대책들을 예견성있게 세워나갔다.

포전에서서의 남달리실현상을

국부하기 위해 짜고든 작전을 높고야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해 일부 단위들에서의 벼가을걷이정형을 분석해보면 따져보는 과정에 일군들은 한가지 사실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높아진 벼가을속도에 남달리기가 미처 따라가지 못한 것은 물론 가을하기 전의 포전작황과 남달리기후의 정보당 수확량이 일정하게 차이있었던것이다. 결코 지나칠 문제가 아니었다.

따져본 결과 벼어놓는 벼를 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으로 묶어놓는데 문제가 있었다. 결국 묶어놓는 벼들이 마르면 생긴 공간에 의해 벼껍과 이삭들이 운반과정에 서로 부딪히게 되거나 이삭이 탈곡기의 작업능률을 최대로 높일수 없었던것이다. 더구나 젖은 벼들은 탈곡기에서 이삭이 잘 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남달이 벼가을속에 섞여나가는 후과를 초래하였다.

일군들은 한결을 깊이 들어가 구체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원인은 해당 단위들에서 벼가을속도를 높이는데만 치중하면서 운반과정에 남달이 허실될수 있다는 데 대해서는 낮은 적지 돌리는데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일군들이 벼가을같이도 단순한 영농공정 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존엄 사수권이라는 관점에서 시적인

한해농사결속이 당정책적으로 맞게 진행되도록 현장기술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지 못했었다.

어거서 일군들은 이런 교훈을 찾았다. 아무리 좋은 포전작황을 마련해놓았다고 해도 남달리 실현상을 철저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벼어 놓는 벼는 지은 보람이 없게 된다.

마음의 신념을 바짝 조이고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밭이 닳도록 포전작황을 밟으며 필요한 대책들을 제때에 세워나갔다.

우선 모든 농장들에서 벼베기속도를 높이는것과 함께 포전에 벼어놓는 벼들이 충분히 마른 조건에서 단으로 묶도록 현장기술지도로 심화시켰다. 그리고 벼어놓는 경우 공간이 생긴것은 묶음 좀 틀어놓도록 두는 벼를 묶어놓도록 했다. 특히 젖은 벼에 비하여 마른것은 탈곡기에 걸리는 부하가 적은 반면에 남달리기속도는 2배정도 더 높다는것을 현장에서 대 비적으로 보여준 사업은 농장원들보다 하여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한 계기로 되었다.

모든 농장원들이 자기들이 거두어들이는 한달한달의 남달이를 사회주의적 존엄을 지키는 한달한 달의 총량으로 여기고 맡겨진

벼단물기와 운반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갔다. 결과 벼베기와 벼단물기, 운반을 비롯한 포전작업에서부터 귀중한 남달이를 허실없이 운반해나가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일 단 비가 몇으면 쌓아놓았던 벼단들을 해체놓아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필요한 대책들도 세웠다. 그리하여 높아진 벼가을속도에 남달리기를 신속히 따라세울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방동발전기와 트랙터의 동력을 리용하여 뜻밖의 사정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작전 한것고, 줄들이 거두어들이던 남달이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관대책을 세워나간것고, 포전에 무거운 벼단들에서 남달리실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하는 조직사업을 따 마세울것고 다 이 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벼가을같이와 남달리기를 단순한 영농전투가 아니라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적 존엄 사수권이라는 관점에서 그와 관련한 모든 사업들 당의 의도에 맞게 조직되고 실현해나가고 있는 이들의 일본새는 혁신적이다.

본기자 김성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때에 포착한 일군들은 지체없이 예견성있는 작전을 펼쳤다. 이에 따라 각 농장들에서는 탈곡기들을 벼단들을 충분히 운반해나가기 위한 사업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일 단 비가 몇으면 쌓아놓았던 벼단들을 해체놓아 습기를 제거할 수 있게 필요한 대책들도 세웠다. 그리하여 높아진 벼가을속도에 남달리기를 신속히 따라세울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방동발전기와 트랙터의 동력을 리용하여 뜻밖의 사정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탈곡기의 만가동을 보장할수 있게 작전 한것고, 줄들이 거두어들이던 남달이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관대책을 세워나간것고, 포전에 무거운 벼단들에서 남달리실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하는 조직사업을 따 마세울것고 다 이 일군들의 혁신적인 사업기풍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벼가을같이와 남달리기를 단순한 영농전투가 아니라 당정책옹위전, 사회주의적 존엄 사수권이라는 관점에서 그와 관련한 모든 사업들 당의 의도에 맞게 조직되고 실현해나가고 있는 이들의 일본새는 혁신적이다.

본기자 김성일

합 주 군 에 서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리적인 운반방법을 도입하여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적극 발동하여 라빈보수를 제때에 잘하고 있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라빈보수직장에서- 본기자 김종훈 특취

순천구두공장 조급당위원회 명언해설을 통한 교양

부여 마르면 고 쫓겨나수 있다

이것이 중산업을 뛰어넘어 가는 프레스직장에 나간 조급 당위원회일군은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다가 작업의 현장에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명언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레에 의해서 지켜지고 담보된다.》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해설모임을 통하여 직장의 로동자들은 탁월한 수명의 품속에 서만 인민의 참다운 존엄과 행

산소열법용광로건설 마감단계, 부분별시운전 진행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변천의 기치높이 최후 승리를 향하여 집중노력해 나가는 선군조선의 벼슬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기 위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계급이 새로운 주체혁명산토대인 산소열법용광로를 완공하기 위한 마지막총돌격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건설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이 기본적으로 끝난 현장에서는 지금 폐열보일러계통과 산소분리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로동계급의 열의와 열정을 바탕으로 각 부분별 시운전들이 마감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과 같이 떨쳐일어나 뿔뿔을 가리지 않고 기여하여 해내고야 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 때 당의 요구를 충실히 대충의 심장속에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상전의 보상을 힘있게 올렸다.

산소열법용광로건설현장의 곳곳에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대 앞으로!》, 《자력자강》 등 힘있는 글자들이 나붙고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합주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열의를 안고 지난해보다 1.5 배이상 빠른 속도로 남달리기를 진행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합일의 남달도 허실되지 않게 빨리 거두어들이도록 하여야 하겠소입니다.》

올해 가을걷이와 남달리기를 외따닥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사업을 하면서 벼탈곡장치 등을 보다 세심하게 하였다.

좋은 점이 많았다. 우선 탈곡기에서 벼알과 벼껍의 머무름시간이 줄어들고 동력부하를 30%나 낮출수 있었다.

이것은 시간당 남달리기능력을 2배로 높일수 있게 하였다. 또한 벼알을 탈곡하여냈을뿐아니라 정선율은 최대로 보장해 주었다. 이 탈곡기는 구조가 간단하여 어느 단 위에서나 자제로 쉽게 만들수 있어 더욱 좋았다.

일군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각 단위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

이들은 군안의 농장들에 설계도면을 내려보내주고 10여명의 능력있는 일군들과 기

